

# 중동사태 장기화...울상 짓는 '착한가격업소'

###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부담...정부 지원 절실 음식점 등 광주·전남 1007개소...일부 존폐 위기 각 지자체 "예산 지원 한계...다양한 지원책 마련"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져 가고 있다.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부담이 커져가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기 한계가 있고, 가격을 올리는 데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는 총 1007개소(광주 362개소·전남 645개소)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11년 도입한 제도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의미한다.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해당 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특히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최근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착한가격업소의 존폐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등이 발표한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으로 전년 동월 116.29 대비 2.15% 증가했다.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다 보니 업소 운영이 급격히 악화돼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에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연일 치솟는 재료비 등에 더 이상 가격을 동결하기 어려워 메뉴 가격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씩 인상했다. 지난 8일 국산 돼지 삼겹살 100g당 평균 가격은 2396원으로, 전년(2161원) 대비 12.1% 상승했다. 목심(2161원→2396원, 앞다리(1381원→1530원) 등 모든 부위의 가격이 올랐다.

A씨는 "자고 일어나면 식재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내 마음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로부터 스프레드보통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연간 약 1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만 가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없이 오르는 물가에 비하면 업주들이 실질적인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유지하는 대신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인건비를 위해 직원을 줄이는 등 다른 방식으로 비

용 부담을 조절하는 업소도 있다. 광산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40대 B씨는 "다른 식당들에 비해 가격이 낮다보니 손님은 유지되지만 결국 내가 버티는 구조다"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에 홍보 효과는 조금 있지만 매출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 여파로 음식을 만드는 원재료 값뿐만 아니라 비닐봉지와 포장재와 포장용기들도 올라 가격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부서별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HD현대삼호, 친환경·AX 전환 대응 속도 목포해양대와 산학협력 협약...기술교육·인프라 공유

HD현대삼호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AX(AI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전환 공동 대응에 나선다. HD현대삼호는 최근 국립목포해양대와 '산학협력 및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7일 목포해양대 대학본부에서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과 최부흥 목포해양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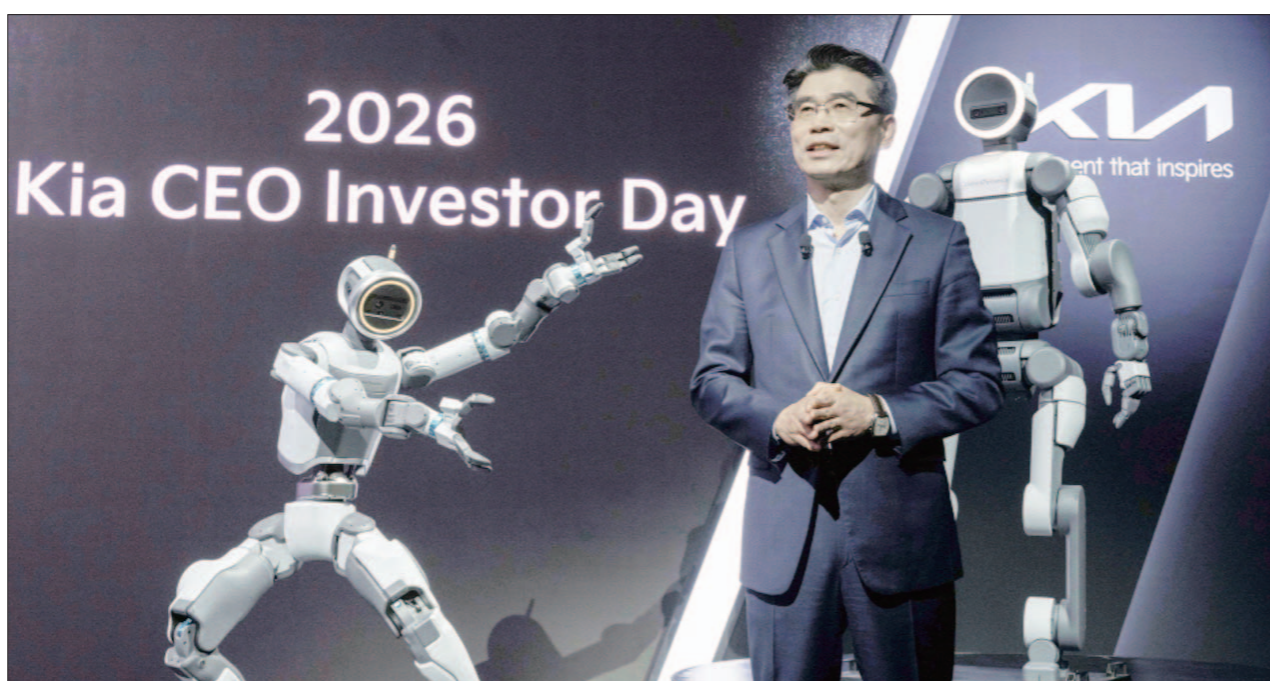
이번 협약은 조선해양 산업의 AX 전환과 저탄소·지능형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과 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산업 전환 대응력을 높일겠다는 전략이 반영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AX 혁신 기술교육 확산을 위한 인적·기술 교류를 확대하

고, 산학협력 기반의 AX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지능형 직무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공유하고, 조선산업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과 공동 세미나, 연구 협력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수요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결합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친환경 선박, 스마트 조선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기술 인력 양성과 현장 적용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부흥 목포해양대 총장은 "조선해양

분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긴밀한 산학 협력을 통해 실용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친환경과 AX 혁신이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학문의 융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기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9@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HD현대삼호는 최근 국립목포해양대와 '산학협력 및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9일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기아, 2030년까지 49조 투자·413만대 판매

### 중장기 사업 전략 고도화...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송호성 사장 "EV·자율주행·로보틱스와 빠른 성장"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49조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판매 413만대 판매를 목표로 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전기차(EV) 14개 모델 100만대, 하이브리드(HEV) 13개 모델 110만대 판매를 통해 전환형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 성과와 함께 한층 고도화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기아는 글로벌 저성장 환경에서도 초과 성장 전략을 추진해 2026년 335만대, 시장점유율 3.8%를 달성하고, 2030년에는 413만대, 시장점유율 4.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아는 고객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PBV, 자율주행, 로보틱스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확

장해 사람, 사회, 인프라를 연결하고 고객과 사회 전반의 가치 창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는 지역별 전동화 전환 속도를 감안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을 출시하고, 2030년 하이브리드 13종을 운영하는 등 다각화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판매 목표는 내연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 115만대이다. 또 제품 혁신과 공급망 강화 등을 포함한 전방위 EV 전략을 기반으로 2030년 EV 판매 100만대, 시장점유율 3.8% 달성을 추진하며 EV 대중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V 제품경쟁력 강화, EV 접근성 향상, EV 공급망 강화라는 3대 핵심 영역에 집중한다. 기아는 이날 2026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2026년 기아는 전년 대비 약 7% 성장

한 335만대 판매(도매 기준)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높아진 3.8%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미국에서는 핵심 모델인 텔루라이드와 셀토스의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한편, 유럽에서는 EV2에서 EV5에 이르는 대중화 전기차 풀라인업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대비 45% 이상 성장한 112만2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는 69만1000대(비중 21%), 전기차는 40만대(비중 12%)를 판매 목표로 설정했다. 기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투자비는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10조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5개년(25~29년) 계획 대비 신규 5개년(26~30년) 총 투자비는 7조원 증가한 49조원으로 확대된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내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주)TH홀딩스

건설링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